

**통권**

59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 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6.23.

**발행일**

2025.12.19.

**발행인**

오재환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편집위원**

신용철, 박미라, 박보은, 옥순주, 정재운

**편집기획**

소통홍보팀 최윤진, 안혜민, 김다영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부산문화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공감 그리고』는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 제공형 문화예술 잡지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글은 모두 개인 필자의 의견을 밝혀드립니다.

**CONTENTS**

**시선**

<b>끝</b>		
끝이 아니고 끈 - 박미라		04
<b>앞</b>		
이 세상 모든 책이 사라진다고 해도		
- 서진		06
예술의 끈 - 대동(大同)에서 대등(對等)으로		
- 정두환		10



**공감, 잇다**

<b>시간, 잇다</b>		
묶고, 풀고, 다시 엮으며 작가로의 삶을 이어가는 끈! 이은정 작가 - 옥순주		16
<b>공간, 잇다</b>		
흩어진 사유의 끈들을 느슨하게 이어가기 - 이보리		28
<b>사람, 잇다</b>		
끈! 예술의 힘으로 서로 다른 매체, 세대, 희망을 엮어가는 사람들 - 정재운		32



**공감, 백배**

<b>행사, 잇다</b>		
환경을 실천하는 몸짓이 일상 속 생활문화가 되는 순간 - 백희정		44
B-ARTS Festa, 예술이 이어지는 도시 - 김현정		48
B-ARTS Festa in 따뜻한 사람 - 허석민		52
Reimagining the Everyday: Taipei Fringe Festival and the Spirit of "Taiwan Sensibility" - Tzu-Ying Yang		56
<b>정책, 잇다</b>		
지역 청년정책 진단과 과제 - 김주현		60
<b>가치, 잇다</b>		
다시, 고통을 느끼는 우리로 - 최승현		64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다는 것 - 한지은		68

**너머**

<b>전통에 새로움을 더하다</b>		
전통과 현대의 조화, 국악그룹 '이빨'		72

# 끝이 아니고 끈

글. 박미라

무시로 날아드는 고양이 털 때문에 끈끈이 롤러를 샀다. 끈끈이가 지나간 곳이 말끔해진다.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던 고양이 털이 끈끈이에 찰싹찰싹 달라붙는 걸 보면 묘하게 기분이 청량해지면서 청소하는 맛이 난다. 끈이 두 번 반복되면 ‘끈끈이’가 된다는 건 자못 의미심장하다. 가느다란 연결이 반복되고 쌓일 때 비로소 서로에게 ‘끈끈한’ 힘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 본다.

이탈리아의 유명 아동문학가인 다비드 칼리의 그림책 <나는 기다립니다>는 끈으로 이어진 사람의 일생을 보여준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빨간 실은 우리 인생의 굵이굵이 연결됨을 잘 표현하고 있다. 기다림, 만남, 상실, 그리고 또 다른 시작.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인생의 진리는 연결이다. 책을 덮고 나면 깨닫게 된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완전히 혼자였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해 보면, 삶에서 ‘끝’이라고 믿었던 순간들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다. 입영 열차를 타기 전, 헤어짐에 복받쳐 오르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엉엉 울어버린 덩치 큰 동기는 4주 뒤 휴가를 받아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고, 가슴을 움켜쥐며 이별을 고했던 연인은 일주일 만에 캠퍼스 모퉁이에서 다시 나타났다. 끊어진 것 같아도 어느새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이어졌다.

삶과 죽음 또한 그렇게 이어진다. 한 사람의 시간이 멈추어도, 그가 세상에 남긴 말과 행동, 그리고 작품은 다른 이의 삶을 움직이며 다시 살아난다. 이 세상을

떠난 존재가 문득 우리의 삶 한 귀퉁이에 나타나는 순간을 자주 체감한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연결이다. 수많은 영화와 소설, 작품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그리는 이유도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의 현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끈은 늘 존재한다. 무대 뒤쪽에서 마지막까지 호흡을 맞추는 스태프의 손끝에서, 차가운 공방의 작업대 위에서 작품을 다듬는 작가의 시선에서, 전시장 한편에서 조용히 머무는 관객의 숨결에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예술을 통해 공감하고 이어진다. 이 끈들이 모여 하나의 공연이 되고, 한 권의 책이 되고, 한 점의 작품이 된다. 예술은 결국 홀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잇는 끈 위에서 펼쳐진다.

지역의 예술 생태계는 서로의 끈이 더욱 필요하다. 누군가의 전시가 누군가의 창작을 자극하고, 한 공연의 열정이 다른 작업으로 연결된다. 때로는 질투로 때로는 응원으로 이어지는 예술인의 끈이 부산의 창작 생태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동안 <공감 그리고>는 그 온기를 기록하고 확장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59호 <공감 그리고>는 이번 겨울호로 종이 잡지로서 이별을 고한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삶의 계절을 건너는 동안 보이지 않는 끈들이 우리를 붙잡아 왔다는 걸 느낀다. 마무리하고, 덮고, 정리하는 겨울의 시간. 우리는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 종이 잡지에서 웹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 또한 끈으로 연결돼 있다. 매체는 바뀌지만, 독자와의 신뢰,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담겠다는 의지, 서로의 예술을 잇는 감각은 여전히 견고하다. 형태만 조금 달라질 뿐, 관계는 변함 없이 이어진다.

<나는 기다립니다>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끝난다. ‘끝’이라는 단어의 ‘ㅌ’에 작은 곱표가 그어지고 ‘ㄴ’으로 바뀐다. 끝이 아니라 끈이다. <공감 그리고>로 연결된 끈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박미라

동화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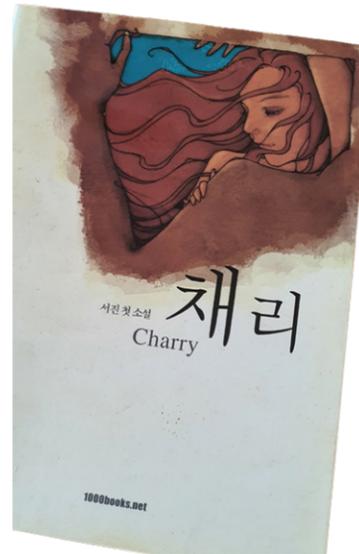
달콤, 쌀쌀, 오싹, 포근한 이야기를 찾아 오늘도 두 눈에 불을 켜고 모험을 나선다. 「다정한 고랄라 목욕탕」, 「별이와 북극여우」, 「오만대삼총사의 대모험 1, 2」 등을 썼다.

# 이 세상 모든 책이 사라진다고 해도

글. 서진

## 1.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에, 자비출판을 한 적이 있다. 책을 내야 작가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다. 신춘문예나 공모전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종이책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다. 여기저기 썼던 한 페이지 분량의 짧은 소설들을 엮어 일단 장편소설로 완성했다. 편집 디자이너였던 여자친구(지금의 아내)와 일러스트레이터 친구의 도움으로 첫 책이 세상에 나왔다. 외계인 여자와의 러브 스토리 『채리(2004)』다. 지금 읽어보면 부끄러운 구석도 많고 감탄하는 구석도 많은 나의 첫 책이다. 무모하게 천 권을 만들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참고에 조금, 쌓여 있다. 나는 가끔 책등의 색이 바랜 첫 책을 쓰다듬어 본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책을 만들지 않았다면 과연 소설가가 될 수 있었을까? 책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 사라져 버리지 않았을까?



첫 번째 자비출판 책

파일로만 저장되어 있어 빛을 보지 못한 다른 이야기들을 떠올려본다.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영원히 저장하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종이책이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살아남을 수도 있다.

## 2.

『뉴욕, 비밀스러운 책의 도시(2010)』라는 에세이/소설을 썼다. 뉴욕의 크고 작은 50여 개의 서점에 들러 인터뷰하고 그들이 추천하는 책을 정리했다. 사진도 찍고 뉴욕의 서점 지도도 만들었다. 특색



B-ARTS Festa 전시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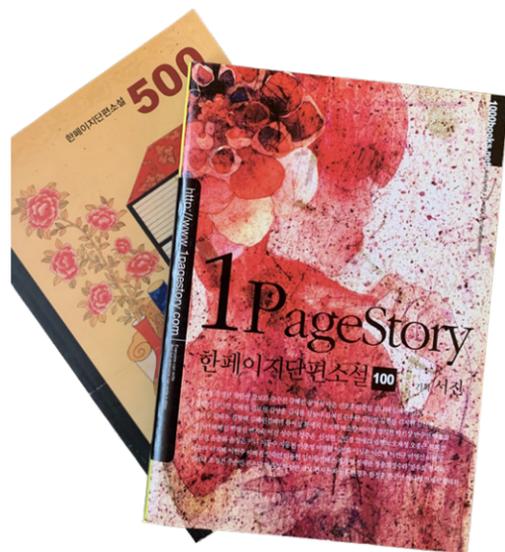
있는 서점들이 점점 사라지는 안타까움에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에세이 중간에 소설을 삽입했다. 미래에는 모든 책이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여자가 미래에서 찾아온다. 미래에 책이 사라지는 원인이 되는 소설을 쓴 사람이 바로 나이며, 그 여자는 내가 소설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내용이다. 서점 정보만 담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황당한 이야기를 섞어 넣었다.

책이 사라질 거라는 예상은 틀린 것 같다. 당시만 해도 전자책 시장이 종이책을 대신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2025년에도 책의 대부분의 매출은 종이책에서 나온다. 국내 시장은 많이 다르다. 웹소설의 매출이 1조를 넘어섰고(2023년 기준), 종이책의 소설 시장을 가뿐히 앞질러 버렸다. 이런 웹소설의 약진은 그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국내 순수 문학 분야도 젊은이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신춘문예나 각종 공모전에 예전보다 많은 작품이 투고되고 있고, 외국 소설에 비해 한국 소설의 판매량 비율도 늘어났다고 한다. 외국에서도 한국 문학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K-문학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을 예전엔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미래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 3.

2001년부터 한페이지 단편소설(1pagestory.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한때 만 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활발히 글을 올렸고, 작가로 데뷔한 분들도 많다. 자체적으로 20여 권의 책도 제작했다. 나는, 누구나 한 페이지 정도의 소설은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짧은 소설을 쓰다가 그것을 엮어서 장편소설을 만들어 자비출판을 했고, 나중에는 진짜 작가가 되었으니까. 사이트가 활발히 운영된 이유 중 하나는 혼자 글을 쓰던 사람들을 오프라인 모임으로 끌어냈기 때문이다. 픽션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글쓰기 모임을 만들었다. 낭독회도 수시로 개최해서 자신의 소설을 발표하고, 감상



한페이지 단편소설 작품집



을 나누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느낌이 들었다. 글은 사람의 거울이니까.

작품 활동 등으로 사이트를 잠정 폐쇄했다가 (2018) 다시 손을 봐서 열었고(2022), 현재는 소소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활동이 예전만 못하다. 한 시절의 흐름이 지나고, 그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기분이다. 만약 그때 짧은 소설을 웹소설로 연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더라면 나는 지금 큰 사업가가 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을까? 어쩌면.

### 4.

부산에서 제주도로 이주한 이후(2015)로는 책을 많이 사지 않는다. 이삿짐센터에서 가장 싫어하는 짐이 책이다. 대부분의 책을 중고 서점에 팔거나 나누어주고 이사 왔다. 요즘엔 주로 도서관

에서 책을 빌려 보거나 전자책을 산다.

트렁크에 책을 가득 담고 여행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왜 변했을까? 책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건가? 그럴 수도. 하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이야기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다.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대감도 여전하다.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는, 보이지 않는 독자들을 늘 생각한다. 아마 종이책이 다 사라지더라도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은, 그것이 보이지 않기에 종종 잊혀져버린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연결성'이 아닐까? 팔로워가 수십만, 수백만 명인 연결성이 아니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간의 연결. 모바일 시대가 가져다준 혜택이 있다면, 그런 연결을 더 쉽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이런 연결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 작가와 작가,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들이 책이라는 매체를 넘어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고 느슨한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흥미를 잃게 되면 곧장 팔로우 취소를 할 수 있는 연결이 아니라 사람과 작품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만들어 내는 것.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작가의 가장 큰 역할이지만 결국, 그런 연결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요즘 시대에 작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래야 이 세상에 책이 사라진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 서진

부산에서 태어나 제주도에 살다 있다.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어찌 어찌 하다보니 소설가가 되었다. 또, 어찌 어찌 하다보니 어린이, 청소년 소설을 쓰게 되었고, 남은 시간에는 피아노를 치면서 살고 있다.

# 예술의 끈

대동(大同)에서 대등(對等)으로

글. 정두환



## 1. 예술 한다는 것

어린 날엔 음악회장을 간다는 것이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1973년 10월 부산시민회관이 개관하면서 부산에도 제대로 된 공연장이라는 것이 생겼다. 지금에 와서 이 상황을 돌아보면 많은 것이 아쉽지만, 당시엔 부산에 대궐 같은 공연장이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린 나에겐 가슴 뛰는 일이었다. 조방 앞 행하던 공터에 엄청난 크기의 공연장이 밤에 환하게 불을 밝히며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는 듯한 기세, 그 속에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밝고 환한 웃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아니 부러웠다. 언젠가 나도 이곳에 가서 음악을 들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다. 부산시민회관 개관 당시는 옆에 있던 삼익아파트를 제외하면 주변은 먼지만 날리는 공터였다. 어린아이들에겐 축구나 야구를 하며 놀기에 아주 좋은 공터였다. 그러나 나에겐 시민회관만 눈에 들어왔다. 어떤 날은 집에서 보이는 시민회관에 환하게 불이 켜지면 마구 심장이 뛰었다. 가서 구경하고 싶었다. 어느 날 시민회관에서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음악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음악가의 삶,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다. 어린 날 환하게 밝혀진 대궐 같은 집에서 행복한 얼굴로 노래하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나의 길을 발견한 것이다. 예술을 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행복한 일이며 행복을 나누는 일이다. 어린 날의 꿈이 평생 나와 동행하며, 퇴직한 뒤의 삶에도 이어지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술은 퇴직이 없으니 말이다.

## 2. 대동단결(大同團結)하여 예술의 길을 걷자

어렵고 힘든 음악을 공부할 때 가장 큰 고통은 경제적인 고통도 크지만, 생각과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주변 친구들은 본인만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함께 공부하고 연습하려는 모습은 없는 듯 보였다.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음악학과를 벗어나 타과 학생들을 만나보았다. 이들과 함께 합창단 동아리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혼자서 대자보를 작성하여 온 대학 캠퍼스에 붙여 대학에 합창 동아리를 창단했다. 함께 토론하며 합창 연습과 공연 등 모두 참 열심이었다. 대동단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 변화하는 진정성이 드러날 때 대학 본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나누며 대학 시절을 보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한 학교 동아리 합창단을 넘어 당시 부산에 있는 7개 대학 6개 합창단을 연합하여 함께 공연하곤 하였다. 뜻을 모으니 대동단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혼자 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 노래함이 참 좋았다. 이처럼 합창단을 만들고, 연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았던 나의 젊은 시절이었다. 연대한다는 것은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 심장을 더욱 뜨겁게 데우는 희망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대학 졸업 후엔 부산서구어머니합창단, ‘글로리콰이어’를 만들었고, 이후로 교향악단과 관악단을 만들어가며 음악인의 길을 걸었다. 공연예술은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동단결하여 예술 행위를 할 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



정두환



화요음악

## 3. 대동(大同)에서 대등(對等)으로 - 화요일에 만난 사람들

지난 40여년 예술가의 길을 걸으며 나는 큰 뜻을 품고 함께 단결하자라는 대동단결을 강조했었다. 특히, 예술가와 관객이 구분되어 있고, 예술가는 자신의 예술세계를 위해 조금 과격하거나 기괴한 행동을 하여도 예술가니까 하며 이해하는 통념에 의문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 행위의 연관성을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끝에 필자가 당시 PSB(현. KNN)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프로그램인 <좋은음악 & 좋은 만남>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음악 인문학 프로그램 화요음악회를 만들어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예술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의 삶을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840여 회를 이어오고 있다. 서로를 알아가는 일, 서로를 이해하는 일은 대등한 관계가 형성될 때 더욱 활력을 갖게 된다. 먼저 알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누가 높거나 낮음이 없고, 누가 잘나거나 못남이 없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예술가의 세계를 공부한다. 화요일의 만남은 나의 삶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 함께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나이와 학력, 경제적으로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차이나 차별 없이 대등하게 있다. 화요일에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 한쪽 어깨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물질적으로는 비록 넉넉하지 않을지 모르나 따뜻한 마음이 충만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들은 편안한 만남 속에 앞서 살았던 예술가, 사상가, 과학자, 문인 등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의 삶을 공부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은 예술 행위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잡고 있다. 하지만, 의미는 부여하는 것보다 발굴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이다. 예술 행위는 세상을 재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힘든 이가 쉬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이게 예술의 길이 아닌가...

### 정두환

예술의 향기를 따라 길을 나서는 문화유목민. 부산CBS교향악단과 두레앙원윈드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잡고 있으며, 문화 현장 곳곳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연이 바람 위로 떠오릅니다.

그 아래, 보이지 않는 끈은  
멀어지는 것과 다가오는 것을  
조용히 이어 줍니다.

흔들림 속에도 연을 놓지 않는 힘,  
끈기처럼 오래 이어지는 마음과  
서로를 붙드는 따스함과 끈끈함

그 한 줄의 미세한 긴장 위에서  
끝은 시작을 남기고,  
시작은 이미 이어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 위로  
서로와 세상을 묶습니다.

# 뭉고, 풀고, 다시 엮으며 작가로의 삶을 이어가는 끈! 이은정 작가

글. 옥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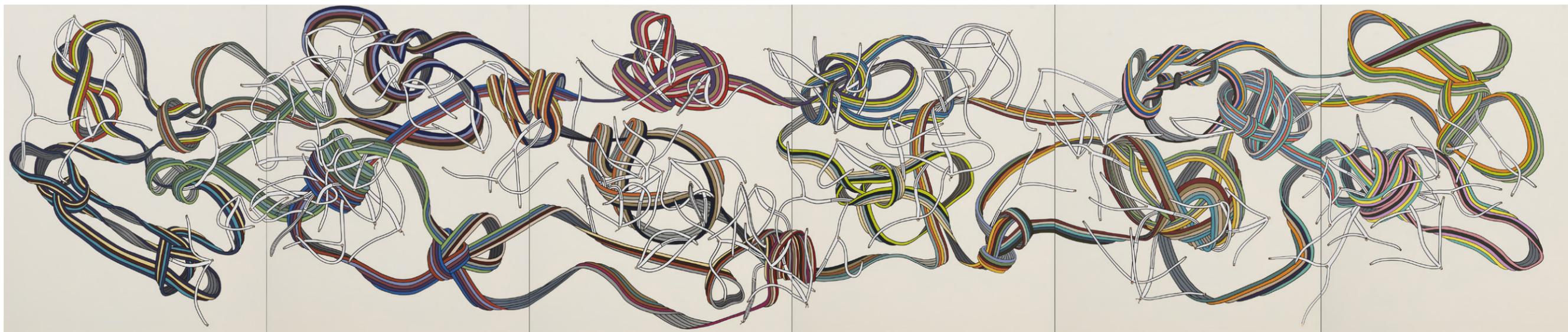
‘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작업해 온 작가, 이은정은 5살 때 미술 학원에 다닌 것을 시작으로 예중, 예고, 학사, 석사까지 미술로 한길 인생을 살아온 청년 작가다. 할 줄 아는 것이 그림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작가로 사는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그의 ‘끈’으로 연결된 그림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정 작가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부터 활동했고 학부 시절부터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지금 여러 매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을 스스로 뽑자면 <코뮤니타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파도의 형상이지만 또 가까이서 보면 각자의 인물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대표작 <코뮤니타스>는 어떻게 이름 붙이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카니발’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베니스 축제처럼 가면과 의상을 입고 일상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즐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마치 신데렐라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역할이 전환되죠. 이 장면들이 제 삶과도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날엔 딸이 되고, 또 어떤 순간엔 손녀, 선생님, 작가가 되었다가 다시 본래의 나로 돌아오고요. 그러다 ‘축제처럼 살아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축제 개념을 찾아 보니 ‘코뮤니타스’라는 철학을 접하게 됐습니다. 종교적 용어로 더 알려졌지만 저는 무교이고, 종교적 행사에서도 자연스럽게 문화로 즐길 뿐이죠. 이런 태도 역시 코뮤니타스의 포괄성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이미지를 작품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도피처’로서의 축제가 떠올랐지만, 결국 가면보다 ‘역할’의 변화가 제 경험과 더 밀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HITCH, KNOTS, FRICTION, 781.8x162.2cm, acrylic on canvas, 2022

**Q. '끈'이라는 소재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릴지 고민하다가, 있는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방식은 제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술의 가장 기초 요소인 점·선·면으로 돌아가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을 이루듯, 결국 면은 캔버스 자체이고 선은 그 중간을 매개하는 하나의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은 묶이고, 꼬이고, 풀리고, 확장되고, 다시 줄어드는 등 다양한 변화를 품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끈'이라는 이미지로 발전했고, 그 끈들이 서로 연결되고 맞물리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Q. 작가님 그림에는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움직임이 반복되는데요. 그건 작가님의 성격이나 삶의 방식과도 닮았을까요?**

제 작품에는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이미지가 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흩어짐은 영원히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고 잠깐 흩어졌다가 다시 집단으로 뭉쳐지고 또다시 잠깐 더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뭉쳐지고 이런 역할 전환 정도로 생각하시면 작품을 감상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대가족 속에 살아왔어요. 어느 날은 조부모님과 어떤 날은 또 우리 부모님 이렇게 지내면서 저 스스로 다양한 역할을 넘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제 작품을 만들었고, 제가 역할 다양성을 어린 시절부터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는 지금은 또 작업실에서의 나, 그리고 집에서의 나, 그리고 공개 석상에서 혹은 제가 일자리를 나갔을 때나 이렇게 다른데 각각의 역할에 충실한 뒤에는 또다시 저 이은정이자 개인의 이은정으로 돌아오는 것도 제 작업 이랑 맞닿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Q. 작가님 작품을 보면 개인과 집단, 혹은 나와 타인이 연결된 느낌이 있어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가장 중요한 '끈'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끈'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엄청 다양한 '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르자면 제일 첫 번째는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가족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을 비롯해 조부모님들, 삼촌들, 여러 친척까지.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제 작업에도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두 번째는 작업자로서의 기준이 되는 끈입니다. 요청에 맞춰서 작업할 것인가, 제 작업의 결을 지킬 것인가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 작업하는 동료들 역시 중요한 끈입니다.



VILLAGE 21(흠어지고 만나며 일렁이는 우리), 53x145cm, acrylic on canvas, 2023

**Q. 요즘은 대가족이 많이 없는데, 어떤 환경이었을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한집에 살았어요. 주택이라서 2층에 살았었는데, 제가 혼자서 제 방에서 자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 방에서 잤다가 그 또 다음 날은 할머니 방에서 가고, 한 일주일 같이 자고 나면 할머니께서 귀찮다고 내보내시죠. 그러면 이불 들고 속도 방으로 가서 “여기서 그냥 살짝 눈만 붙이고 갈게.” 이래 놓고 자고 가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주방에서도 잔 적 있고, 진짜 복도에서도 자고, 여기서 잠깐 그냥 누워만 있다가 하는 식으로. (웃음)

**Q. 작가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 작가님 작품들이 하나씩 떠오르는데요. <코뮤니타스>적이고 <움벨트>같은데 <기대어 만든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대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지각된 시선으로 기대어서 만든 이야기로 잘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 작가님 작품의 제목은 작가님의 삶을 대하는 태도 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문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립이라는 단어가 혼자 서는 게 아니고 옆에 지탱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혼자 설 수 있다는 문장을 읽고 나서 사실 움벨트라는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딱딱 붙여서 한번 세워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질 수 없으니 비로소 자립이 된 것 같고 방금 말씀 들으니까 완전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기대어 만든 이야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시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미지가 다 기대어 있고 포개어져 있고 한데 기대어 만든 이야기라는 문장 자체가 너무 딱이었어요.

제가 작업실에서 동료들에게도 “우리는 직업이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남들 일할 때 우리도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낮에 같이 그림 그리자고 재촉하기도 하는데, 사실 ‘옆에 누가 있어야 그림을 그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누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나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 누가 좀 쉬고 있으면 ‘나도 좀 쉬어볼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상생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그림을 그리는 에너지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나 왜 그림 그리고 있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커지더라고요.

서로 기대고 기대어주는 관계가 없으면 창작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늘 느낍니다.

‘나 혼자 신나서 그림 그리는 건가? 나 혼자 내 일기장처럼 그림을 그리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대어서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나를 보면서 전시 제목으로 떠올랐어요.

**Q. 요즘 작가님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끈’은 무엇인가요?**

조금 현실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가장 강한 끈은 ‘밥줄’입니다. 전업 작가로 갈지, 교육에 더 집중할지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기획안이나 전시, 인터뷰 같은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연결되곤 합니다. 이런 흐름이 작가로서의 ‘끈’을 계속 이어나가고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큰 끈은 마지막 전시를 열었을 때의 감각입니다. 전시는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음 기획으로 이어지는 연결점이 되거든요. 그 과정 전체가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끈’들입니다.

**Q. 작업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까요?**

제 안의 내적 갈등이 가장 큰 매듭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별자리 작업을 준비하는데, 이전 작업을 다시 보여달라는 요청이 많아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앞으로 공개할 작업과 너무 다른 결이라 전시를 보류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전이 다가오니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기준을 지키면 고집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연락이 끊길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지금 해야 할 작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이 작업을 좋아해 줄 사람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단 해보는 거죠.

**Q. 전시에서 보이는 자연적 패턴(별자리, 파도 등)은 작업에 어떤 영감을 주나요?**

자연은 늘 예측할 수 없는 가능성을 품고 있잖아요. 제 작업의 끈도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 자연의 흐름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듭 작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형상이 있었거든요. 작업 노트에 “공동체가 아무리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을지언정 비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슨해질 수도 있고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라고. 끈은 언제든지 풀릴 수 있고 잘릴 수 있으니까요. 공동체의 유동성을 시각화하는 데 자연의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끈에 이어서 새로운 작업을 모색할 때 떠올렸던 것이 별자리입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3개월을 도서관을 다니며 책만 읽고 작업실을 가지 않았을 때 본가가



UMWELT, 130.3x89.4cm, acrylic on canvas, 2020

양산인데, 본가에 가서 “난 이제 틀린 것 같다. 여행을 갔다 와야겠다.” 이라고 나서는데 밤하늘에 별이 너무 예쁘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마침 제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볼까 궁리하면서 낮에 도서관에서 건축학책을 보고 왔는데 거기 교회건축에 두꺼운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어서 별자리를 만들어서 낮에는 태양 빛이 별자리 모양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고요. 그런 이미지를 보고 멋지다 생각했는데 밤에 별자리가 선명하게 보이다니.

저거를 또 내가 풀어내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보니까 별자리도 계속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만들어졌다 모이네요.

이거다! 그래서 별자리로 입체 작업도 만들어보고 진짜 처음으로 석고라는 걸 만져봤는데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색깔이랑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딱 반반이었어요. 반은 이전 작업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은 진짜 재밌다! 이걸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연결시켜도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요즘에 이거 다시 연결시키는 거 따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석고는 외부에서 작업 해야 하니까 추운 겨울에는 잠깐 제쳐두고 다시 평면으로 작업하는 중입니다.

저는 자연 속에 새로운 것이 정말 많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영감을 준다기보다는 이 연결과 연결 속에서 오는 엄청난 가능성이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Q. 관객이 작품 앞에 섰을 때, 작가님이 기대하는 '연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관객이 제 그림을 보며 자기만의 구체적 이미지나 일상을 떠올려주길 바랍니다. 마치 일기처럼요.

“어제 먹은 국수 같다”, “내 기억 속 어떤 장면 같다”처럼 개인적 기억과 선명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 자체로 저와 연결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전시 때는 방명록을 노트처럼 비치하고, 관객의 기록을 읽으며 다음 작업의 아이디어로 삼기도 합니다.

저는 관객과 명확한 이미지 혹은 어떤 구체적인 언어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그린 이미지를 보고 구체적인 이미지나 일상을 떠올려주길 바라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어제 내가 먹은 국수 이미지인데 어제 내가 먹은 다크 핑크색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방명록을 노트식으로 비치해 놓기도 하거든요. 그 방명록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제 다음 작업의 구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화가 떠오르긴 하는데 “언더 커뮤니티스”라는 작품을 전시했을 때 그 작품 이미지는 파도 아래에 사람들이 엮히고설켜 있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도 이 이미지가 “저게 뭐지?”라고 관람객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관람객 분이 방명록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 그림은 목표를 잃은 낙담이 아니고,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을 풀어나가는 에너지가 느껴진다”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작업하는 게 딱 그거였거든요.

제가 작업하면서 표현하려고 했던 내용을 진짜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고 ‘관객분과 내가 통했구나! 더 훨씬 더 하나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게 감동 받았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거기서 ‘아, 내가 그림으로 누군가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줄 수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용기를 얻었기도 했고요. 왠지 이분한테도 그런 힘이나 에너지를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저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이없는 구별, 162,2x357.6cm, acrylic on canvas, 2018



**Q.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경계하는 것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건가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직접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소통이라든가, 겪어보지 않고 그런 걸 제일 경계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제가 바로 서서 이렇게 마주 보고 소통하는 모든 그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그게 제일 소중한 건 사실 전시장 안에서 이제 관람객들이랑 직접 마주할 때입니다. 근데 제가 좀 소극적이어서 작가가 아닌 척... 예를 들면 전시장에 가보면 지킴이처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그 관람객들이랑 저랑 소통하는 건 사실 저는 그림이 대신하고 있고 관객들이 앞에 서 있으면 그때 제일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림을 보고 "이렇게 산만한 그림이 별로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그마저도 좀 좋아요. 어쨌든 그림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무채색 계열의 그림을 그려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사실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해석되고 뭔가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끈은 그것 같아요.

관람객과의 소통!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작업에서 '끈'이라는 주제를 더 깊게 파고들고 싶은 부분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실험해보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사실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동안은 매듭이든 어떤 형태를 형상화해서 사회 집단을 그려왔는데 이제는 그 사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표현해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그룹화할 때 지역색 아니면 집단색, 정치색, 이런 식으로 색이 뒤에 늘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색, 미국을 대표하는 색, 일본을 대표하는 색. 이런 식으로 해서 색과 끈을 활용해서 세계적 유대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은 좀 더 작은 지역으로 나눠도 좋고요. 지금 이미지로는 나왔는데 아직 작가 노트가 형성되지 않아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하나의 작품이 되고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이 편하면 글 작가가 됐을 텐데. 추상적인 걸 이미지로 풀어내기엔 너무 편해요. 근데 이 이미지를 다시 글로 보관을 해야 하니까, 조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제가 글이 안돼서 지금 그림 작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웃음)

이은정 작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주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 이는 삶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과의 시선, 스스로에게 작가로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똑바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에도 있다.

인터뷰 말미에서 드러난 작가의 비킷리스트는 명확하다. 국가 소장품 작가가 되는 것! 이는 성취나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계속 '작가로 존재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욕망에 가깝다. 그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작품이 좋다"는 말이라는 점은, 작업의 지속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말은, 이 모든 고민 속에서도 작가는 여전히 그림 그리는 작업이 "재미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끈이라는 소재가 지닌 무한한 변형 가능성은 그의 상상을 멈추지 않게 한다. 언젠가 슬럼프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 그는 분명히 작업 속에 있다. 이 인터뷰 내내 작가로서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작가로 나아가고 있다!" 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목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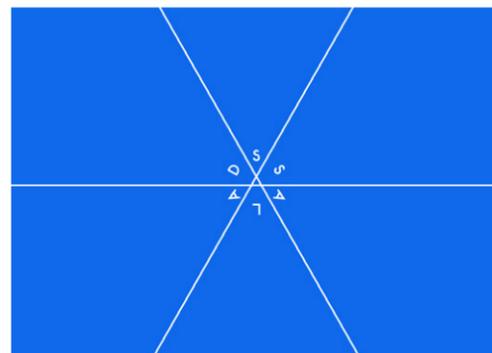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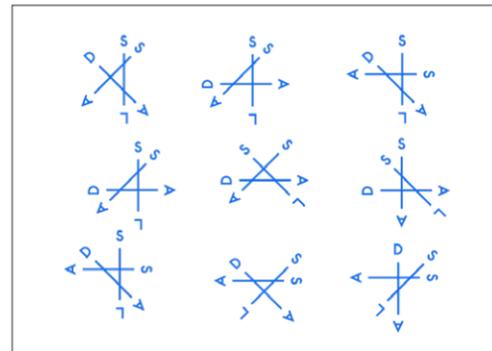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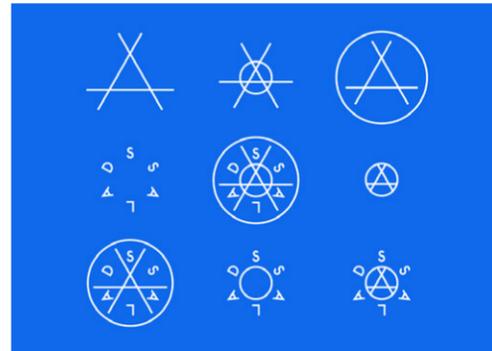
연극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성장한 삶의 단상을 모아 「나의 페르소나 별이」라는 책을 냈다. 현재 심리극역할극전문상담사로 연극을 활용한 치유적 직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자가사극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 흩어진 사유의 끈들을 느슨하게 이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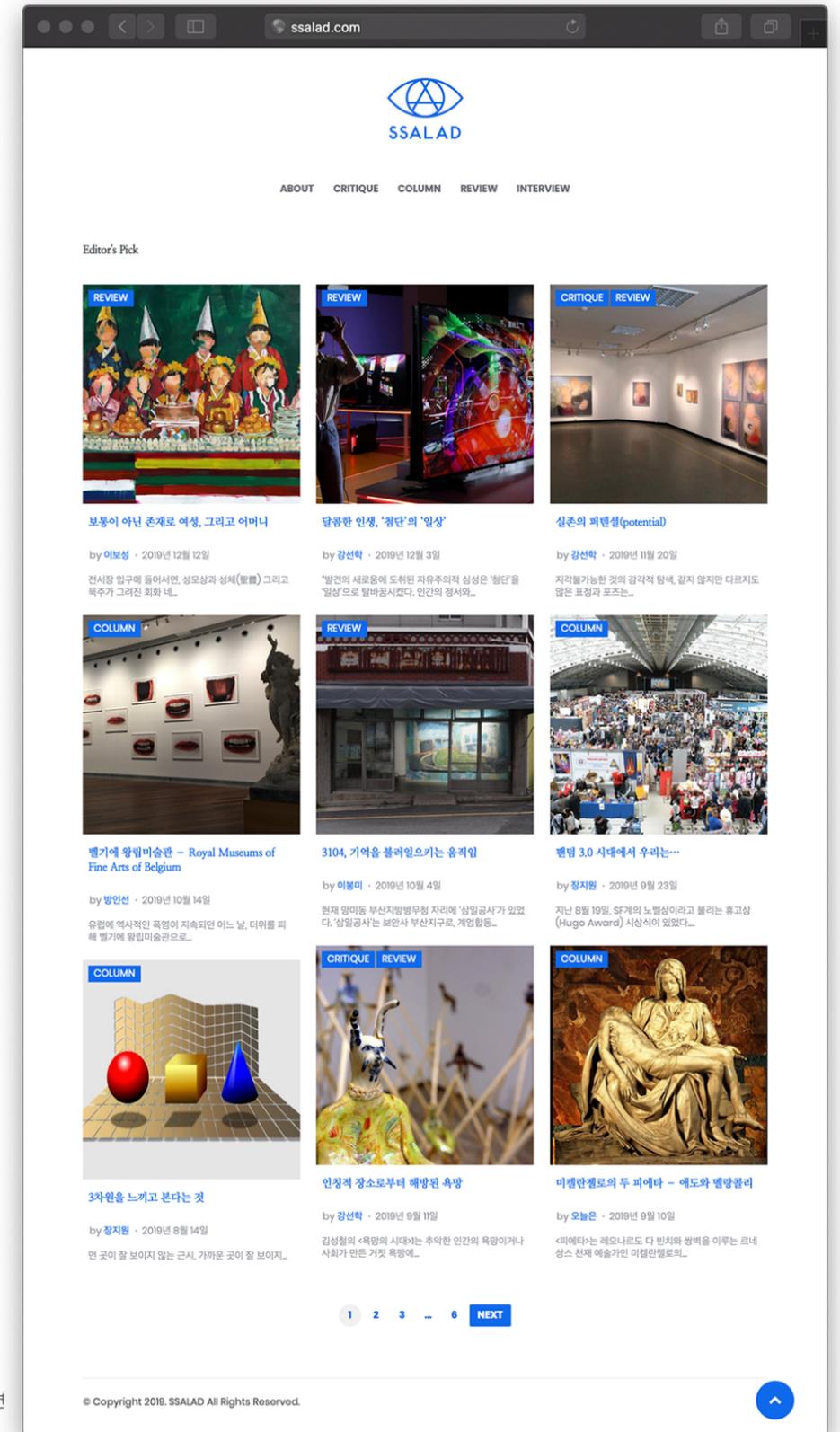
글. 이보리

예술을 둘러싼 논의가 파편처럼 흩어지고, 지역에서는 비평의 자리가 급격히 줄어들며 사유가 머물 공간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비평을 필요로 하지만, 그 현장을 사유하고 확장할 언어를 공급할 구조는 희박하고, 예술가들마저 자신들의 작업을 깊이 있게 되짚어 줄 사유의 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체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남긴 사유의 끈들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느슨한 연대로 이어지며 조용한 흐름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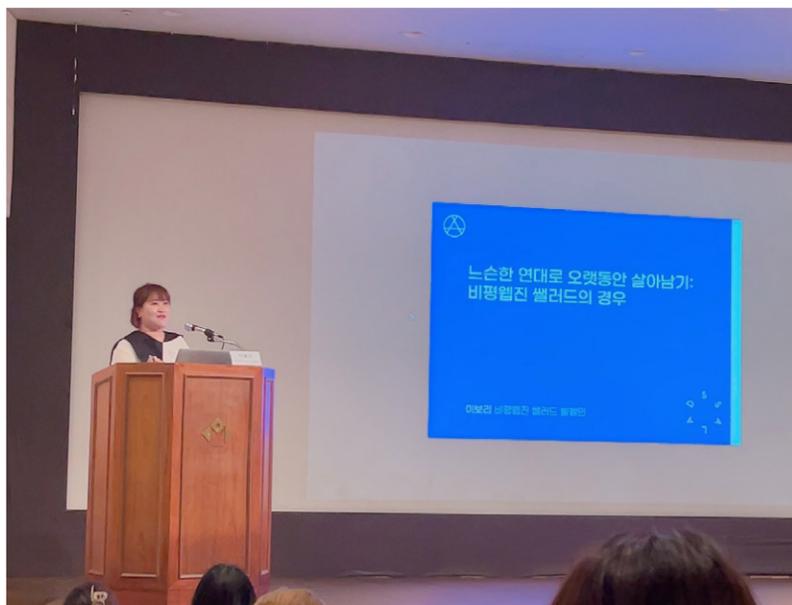
썰러드(ssalad.com)는 바로 그 느슨한 연대로 만들어진 온라인 속 공간이다. 나는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사유와 담론을 나누고 작가와 독자의 자리를 잇는 비평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다. 이후 이러한 지향에 공감한 예술가, 기획자,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둘 합류하며 썰러드는 자연스럽게 자발적 비평 공동체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썰러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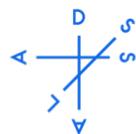
썰러드(ssalad.com) 화면



2023년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부산 동시대 미술의 현황과 전망에 관해 이야기 하는 포럼 <우리들 이야기>에서 필자가 켈러드를 운영하며 경험했던 이야기를 발표하는 모습



켈러드에서 주최했던 로컬아티스트 프로모션 프로그램 <아트엘리베이션> 진행 장면. 더마루아트컴퍼니 박진희 대표가 부산의 신진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피드백해주는 모습



2019년 3월 첫 지면을 연 이후, 켈러드는 '부산 중심의 로컬 시각예술 웹진'을 표방하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로컬 웹진이라는 단어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이것은 켈러드의 정체성에서 지역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다. 중심/주변, 주류/비주류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따라 스스로를 경직된 위치에 고정시키거나 그러한 분절을 극복하는 거대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다. 이 명칭은 그저 필진들의 삶과 작업의 무대가 자연스럽게 부산에 놓여 있었다는 현실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로컬이라는 말이 흔히 경계를 만들고 권력을 나누는 틀을 호출하곤 하지만, 켈러드는 그 경계에 자신을 가두지 않으며 각자의 작업과 사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열린 지면으로 작동해 왔다. 비평의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거창한 대의를 주장 하지도 않았다. 다만 비평의 자리가 거의 부재하던 지역에서 서로의 사유와 감각을 이어 붙일 수 있는 작은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어온 시간은 거대한 성과로 측정하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켈러드가 지역의 작업과 독자, 사유와 담론을 잇는 연결의 자리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작동하고 있음을 조용히 보여준다.

켈러드는 물리적 지면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글을 싣는 것이 가능하다. 고화질의 컬러 이미지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함께 제시할 수 있어 비평 대상의 시각적 정보 또한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이와 같은 비물리적 기반은 글이 지닌 형식과 감각을 더욱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때로는 인쇄 매체에서 다루기 어려운 서술과 실험을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조는 비평이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에 고정 되지 않고, 각자의 사유가 갖는 결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켈러드는 단순히 글이 모여 있는 아카이브가 아니라, 지역의 비평적 사유가 머물고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두는 하나의 공간이다. 그 안에 쌓인 텍스트들은 결과물임과 동시에, 서로 다른 관점과 감각이 놓일 자리를 마련해온 흔적들이다. 켈러드는 비평이 쉽게 단절되는 지역 환경 속에서 작지만 꾸준한 버팀목이 되어 왔고, 다음 사유가 스며들 수 있는 자리를 묵묵히 비워두고 있다.

사유의 끈이 이어지는 방식 역시 이 공간이 품은 느슨한 구조 속에서 가능해진 일이다. 강하게 조이지 않아도 유지되는 연결과 흩어져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흐름은 켈러드를 지탱해온 힘이며, 지역의 비평을 앞으로도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켈러드는 그 끈 위에서 오늘도 사유가 머물 자리를 조용히 열어두고 있으며, 또 다른 결의 사유를 가진 누군가가 이 공간과 느슨하게 맞닿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이보리**

부산에서 15년째 활동해온 기획자이자 디자이너로, 예술을 둘러싼 사유를 기록하고 확장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뮤트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전시기획, 출판, 아카이브 연구, 디자인 등 시각예술 기반의 다양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 끈!

## 예술의 힘으로 서로 다른 매체, 세대, 희망을 얹어가는 사람들

.....

진행. 정재운  
대담. 성백, 이광현, 홍승이  
정리. 양영석 | 사진. 권순일



겹겹이 피어난 꽃잎들,  
어느 한 장 떨어지는 일 없도록 느슨히 묶는다  
숨씨 없는 노래, 어긋나는 붓질, 비문으로 쓰인 문장이면 어떠랴  
모든 걸 끌어안는 하류의 하구처럼  
복수 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 묶음 건네고 싶다  
그들의 연대, 지속을 위한 약한 연결들  
그래, 강하게 움켜쥐었던 것들이 끝내 풀어지지 않는 걸 본 일은  
이날 입때껏 없었으니까

**정재운** 오늘 모신 세 분은 작품활동을 이어오는 아티스트이자 기획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각자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성백** 저는 시각예술을 전공, 최근에는 문화기획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혹 눈에 보이는 일은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시각예술가'라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간에서 젊은 작가들과 실험적인 작업도 하고 있고 전시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작가들을 위해 대관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닥치는대로 일하는 시각예술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현** 음악하는 이광현입니다. 지금도 네 개 정도 밴드를 운영하고 있고 필드에 머무르면서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모든 활동을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체를 만들고 기획과 운영을 하게 되고, 지역도 옮겨가며 음악 활동에 도움 되는 아웃풋으로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각각의 팀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역할과 자아로 활동하면서 트리거, 그러니까 사건의 촉발자, 발화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운

**홍승이** 저는 중앙동 40계단 옆에서 조그만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고, 극단 <밖>의 대표이자, '아시아 미트 아시아' 부산 지역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노동문화 예술단 <일터>에서 기획보조를 입단했는데, 어떤 계기로 배우의 길을 오래 걸어 왔습니다.

**정재운**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최초의 예술은 무엇이었는지? 전업 예술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계기가 있다면요?

**성백** 어릴 적에 태권도와 유치원을 결합한, 오묘한 학원을 다녔어요. 하루는 배추를 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왜 거기 배추가 있었는지는 의문

입니다. 웃음.) 그날 선생님께서 어머니께 “애가 배추를 잘 그리더라”는 얘길 엄청 하신 거예요. 그때 들었던 칭찬이 오늘의 저를 만든 시발점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업작가가 되고자 마음먹은 건 2002년 월드컵 무렵이었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조각 작품 공모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영도의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틈틈이 응모 준비를 하면서 ‘당선되면 조각에 전념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정말로 이뤄진 거예요. 그날로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각활동에 전념했어요.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갤러리 앞에 세워진 동상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이광혁** 초등학교 장기자랑에서 노래하고 춤춘 것이 제 예술활동의 처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허세나 멋있어 보이는 걸 좇기보다 대중들과 소통하고 재미난 활동을 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게 됐던 것 같아요. 사회성을 뺀 예술이라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항상 현재에 집중하는 타입이긴 한데, 대학 시절에는 예술인이라는 자의식보다는 운동가 내지는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했어요. 그것 때문에 군입대도 많이 늦어졌는데, 군 생활 동안 음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곧 이십 대가 저물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결론

으로 플랜A부터 C까지 만들어놓았는데, 그 옵션에 밴드 활동을 그만두는 선택은 없었어요. ‘뒤편 활동은 계속한다. 이후의 리스크는 감수한다’는 쪽으로 갈피를 잡았죠.

**홍승이** 초등학교 4~5학년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시골에 살았는데 놀거리가 마땅치 않잖아요. 주로 공기놀이 고무줄놀이를 하다가 친구들과 유행가에 맞춰 춤추는 놀이를 했어요. 삼거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구경을 오셨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보이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고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맘을 흘리면서 의견을 내고 동작을 연습했던 것이 제가 경험한 최초의 공연예술이었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거기에서 노조 활동도 하게 됐습니다.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밖으로 나와 민주노총의 지부에서 문화부장으로, 노동문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알게 됐고, 노동문화 예술단 <일터>의 활동을 접하게 되면서 전업 예술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재운** 세 분 모두 제각각의 답을 들려주셨는데요. 역시 예술과 생활은 납작하게 요약될 수 없다는 걸 재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계획적으로, 또 누군가는 순발력 있게 전업 예술인의 삶을 꾸려가고 계신데,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활동이나 작품을 꼽아서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백** 2019년, <아츠버스 유라시아 횡단프로젝트>가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시각예술 작가들뿐만 아니라 무용가,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시너지를 발휘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했어요. 원래 계획은 2019년에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횡단해 2020년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였는데, 코로나와 우-러 전쟁이 발발하면서 프로젝트를 끝마치진 못했습니다. 아츠버스는 6년째 베를린에 머물러 있어요. 최근 2~3년 동안은 유럽에서 한국 작가들의 이동수단이자 레지던스 공간으로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실험적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작업이야말로 작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꿈꾸는 활동일 텐데,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덕분에 실천을 할 수 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아츠버스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이광혁** 저도 성백 작가님이 말씀하신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 전엔 뮤지션으로의 접근 방식이

사고의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행위예술가들과 즉흥 작업을 경험하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의 예술관, 세계관에 많은 변화를 주었죠.

**홍승이** 저는 제가 참여한 작품이 아니라 관람한 작품을 소개하고 싶어요. 2012년 타이페이에서 레지던시로 있었는데, 굴링실험극장에서 ‘아시아 미트 아시아’ 팀의 히로시 오하시 연출의 ‘광인일기’라는 작품을 봤어요. 그 작품이 저를 대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작품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존재감, 당당함, 자신감, 생기, 작업을 대하는 열린 태도, 그들의 존재방식에서 충격에 가까운 자극을 받았죠.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는 다국적 아티스트들이 신체의 언어를 활용해 공연을 펼쳤는데, 굉장히 많은 동시대 문제들이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하면서 몸살을 앓을 정도로 질투를 느꼈어요. 다음날엔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연출가를 찾아가서 같이 작업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정재은** 세 분 모두 한 사람의 아티스트이면서 복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죠. 몇 해 전 홍승이 대표님이 연출하신 ‘살로메, 40계단을 오르내리다’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기획·연출자로서의 홍승이와 배우로서의 홍승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홍승이** 그 작품은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를 원작으로, 돌아가신 히로시 오하시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코로나 기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작업을 어떻게 이어 갈까 고민하다가 후배들과 함께 해보자 결심했던 작품입니다.

배우나 퍼포머로서 작품에 참여할 때나 연출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배우는 제 몸이나 감각, 표현에 집중하면 되고, 연출가가 제시한 비전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 하면 되는 작업이죠. 특히나 서사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배우로서의 역할보다도 오하시 선생님과 작업을 통해 몸의 감각을 확대하고 표현을 다듬어내는 데에 집중하는 배우의 역할은 연출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방향에서 관객과 직접 호흡하고, 순간순간 내 안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배우의 작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연출자로서의 경험은 많은 편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연출가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능력도 부족한 데다가 독선적이기까지 하고 또 저를 낮추고 희망을 얘기해야 하는 태도 역시 부족했다는

것을 통감했어요. 아울러 연출은 작품이 사회와 만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작품을 사회에 설명해야 하는 책임감과 증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은** 마찬가지로 성백 작가님, 이광혁 선생님도 수행하고 있는 여러 역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정체성이 가장 잘 맞는 옷인지 이야기 해주주세요.

**이광혁** 밴드 활동을 계속하면서 영덕에 거점을 마련해 지역을 잇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 제작, 연출자로서의 롤도 수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역할은 ‘아빠’입니다. 아이가 생기고 생활적 압박을 받다 보니 예술가로서의 정체성도 위협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부처님이 아들의 이름을 ‘라훌라’(Lahula, 장애물)라고 지은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수익을 좇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많이 배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장애라고 생각하진 않기로 했어요. 후배들 중에는 ‘예술 하면 결혼도 못 하고 자식도 못 낳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아버로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후배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요. ‘예술가도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고요.

**성백** 전 고등학교 때는 한국화를, 대학에서는 조각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첫 개인전은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대학 시절 지도교수님이 엄청 혼을 내셨어요. ‘열심히 조각을 가르쳐놨더니, 하라는 조각은 안 하고 먹물이나 마시고 있냐’라고 하셨죠. 아마 당신 께선 제자가 당채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셨을 거예요. 질문대로 수많은 정체성을, 저만의 색을 찾아 헤맨 지난날이었습니다. 지금은 기획자로서의 역할이 70퍼센트, 작가



이광혁

로의 역할이 30퍼센트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창작 활동 비중을 높여서 그 비율을 5대5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것은 부모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배추를 잘 그렸다고 칭찬해주셨던 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최근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어요. 두 분의 이야기를 내 작업에 어떻게 녹여낼까, 그분들이 내게 줬던 정신적·육체적 유산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운** 다음 질문은 성백 작가님과, 홍승이 대표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두 분의 예술 세계에는 언어라는 표현 매질의 위상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홍승이 대표님의 경우 의미 전달의 주된 방식이 퍼포먼스이고 반언어적 경향이 강하고, 성백 작가님은 표현의 순간에 발생하는 그 무엇을 포착하려는 욕망에 중심을 두고 계신데요. 두 분은 어떤 끌림에 주목해서 작업을 하시는지, 그 창작 과정을 독자들에게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 일상의 모든 것이 작업의 밑재료가 되죠. 일례로 '1999년 1월 29일 가족사'라는 제 작품이 있어요. 병상에 누워계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조각으로 만든 것인데,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 이죠. 그 죽음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시선들... 그 개인적인 아픔은 누구의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술은 개별자의 삶을 그려냄으로써 보편적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니 말입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작가와 협업을 했는데, 그 작가가 말하길 이스라엘 전쟁물자와 팔레스타인 구호물자가 이탈리아 남부 항구에서 출발한다더라고요. 그런 경험, 사회적 이슈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게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이** 저는 반언어적인 예술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언어가 너무 많아요. 항상 언어가 내 눈에 흐르고 있고 온몸이 언어로 둘러싸여



성백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끌림에 주목하느냐... 저는 절박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연민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오랫동안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과거 <일터> 시절에는 메시지를 강하게 표현했던 거 같아요. 부당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분명한 서사를 전달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 '아시아 미트 아시아'의 작품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면마다 많은 이미지를 불러일으켰고 제 스스로 사유하게 하고 고민으로 이끌었던 관람 경험이었어요.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공연예술이 즉각적이고 즉발적으로 교감하는 작업이라고 했을 때, 동시다발적 감정을 문장으로 다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은 늘 하고 있어요.

**정재운** 이광혁 선생님께도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음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광혁이라는 음악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은 대중을 흥분시키는 데에 특화된 장르다, 삶의 비의를 포착하거나 들여다보려는 쪽과는 거리가 멀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선생님이 추구하는 음악은 어떤 색깔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광혁** 아마 저를 백만 촛불집회에서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공연했다는 것은 복 받은 기회이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로부터 저항예술은 항상 존재했던 것이고 젊은 시절 그것에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목적지향적인 음악 활동을 해온 시간이 길었던 것인데, 이후에는 전과 다른 음악들도 하고 싶어서 여러 밴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십 대부터 사오십 대 까지 협업하면서 세대 갈등을 넘어서서 다른 자아들과 함께 작업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미학적 발견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가장 어울리는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재운** 한 사람의 예술인이 아티스트로서의 성취에만 전력을 다해도 그 정수에 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모인 세 분은 복수의 정체성을 갖고 계신데요, 그것이 단순히 다재다능하기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삶의 방향성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백** 저 같은 경우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시절이라는 청년기를 누구보다 잘 그려내는 일에만

홍승이



집중하고 사회적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잘났다고 해서 성공이 직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적 시스템 안에 순응해야 하죠. 주변의 갤러리 전속 작가들을 보면 그림 하나하나의 방향성까지 지시를 받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에서 작가로의 성공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폭력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수평적인 시스템 안에서, 제가 만든 공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실험적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자인 동시에 창작자로서,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홍승이** 성백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 보조로 입단했던 <일터>에서 배우가 필요한 작품이 생겨서 단역으로 출연하게 됐고 나아가 배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연출이나 기획자로서의 정체성은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시기마다의 선택이었고요. 연극 종사자로서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요구되는 역할이 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다하지 않다 보니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고, 덕분에 많은 경험을 통해 연기의 세계도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이광혁** 저는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페르소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요. 예술가들은 작품마다 혹은 역할마다 그것을 잘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끈질김과 집요함도 중요하지만, 저처럼 페르소나의 전환이 빠른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가 속한 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최선을 다해 새로운 페르소나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공적인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정재운** 다음 작품으로 구상하고 계신 바를 소개해주신다면?

**홍승이** 저는 극단 '뱌'와 주요하게 협력하고 있는 '아시아 미트 아시아' 조직과의 작업을 이어나갈 생각이예요.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한 작품을 꾸리면 어떨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배우로서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설픈 연출로 몇 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것을 반성하며 온전한 연출로 한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이광혁** 최근에 만든 <7번 국도>라는 팀 활동을 통해 대중적인 소통을 하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과

작업하며 사랑 노래도 만들고 앨범도 내려고 합니다. 곳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루츠 리딤>이라는 팀도 있습니다. 듣는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음원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틀에디션>이라는 팀 활동은 부산이라는 끈과 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연극 작가들과 킬라몽키즈 춤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음악감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동유럽 투어를 다녀왔고, 오는 1월에 칠레, 2월엔 마카오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백** 곧 맞게 될 50대에는 창작자로서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트 버스를 내년에는 꼭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광혁 선생님도 같이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트버스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두루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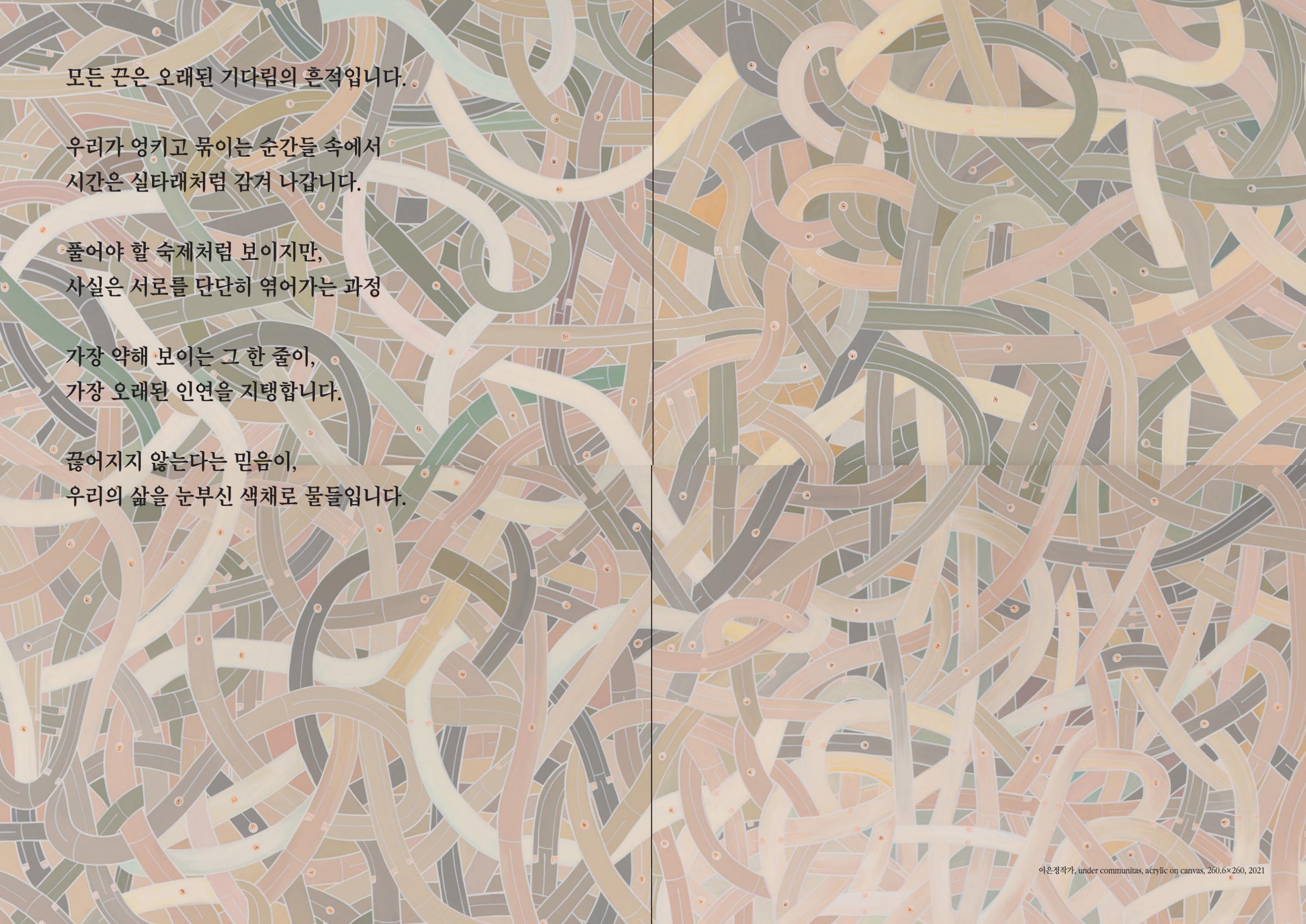
**정재운** 끝으로, 여기 모인 분들은 앞으로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이광혁** 귀감이 되는 좋은 뮤지션, 후배들의 삶에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선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승이** 제가 이상한 짓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발랄하게 작업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성백** '답다' 내지는 '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배다운 사람, 기획자다운 사람, 창작자다운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정재운  
좋은 소설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다다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설집 '경이로운 동그라미'(강, 2024)를 썼다.



모든 끈은 오래된 기다림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엉키고 묶이는 순간들 속에서  
시간은 실타래처럼 감겨 나갑니다.

풀어야 할 숙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단단히 엮어가는 과정

가장 약해 보이는 그 한 줄이,  
가장 오래된 인연을 지탱합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눈부신 색채로 물들입니다.

# 환경을 실천하는 몸짓이 일상 속 생활문화가 되는 순간

글. 백희정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수많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의 끈, 공동체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연대의 끈, 그리고 시간 속에서 나와 세계를 이어주는 지속의 끈. 이 끈들은 때로는 희미해지고, 때로는 끊어질 듯 팽팽해지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우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5분 도시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사우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형 환경 실천 및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음으로, 나는 '15분 도시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사우나>' 활동을 준비하며, 마을 주민과의 호흡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주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 환경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낯설은 다른 마을의 주민들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거대하고 막막하지만, 개인의 관심과 환경에 대한 일상의 작은 실천을 모으면 마을 전체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온도가 바뀔 수 있다고 믿었기에.

'15분 도시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사우나>'는 LIKE GREEN이라는 이름 아래 금정구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환경을 매개로 여러 결을 가진 끈을 묶고 엮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프로그램 수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의 끈에서 연대의 끈으로, 이 끈들은 환경 실천이라는 고민과 희망을 서로 연결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이 아닌 공간에서의 낯설음에 진심을 담아 '함께' 하고픈 간절함으로, 환경 실천이라는 주제를 통해 온 마을이 들썩이게 하려면 서로의 끈이 되어주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15분도시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사우나>'는 바로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우나> 활동은 또 하나의 도전을 하게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들과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서 호흡하고 싶었고, 주민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물꼬를 열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환경 실천이,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마을의 거점 공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함께 동참하는 힘이 시너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 바람은 곳곳에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으로 큰 바람을 일으키길 바라보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우나> LIKE GREEN으로 인연이 된 참여자들이, '머드레생활문화축제'와 '성과 공유회'를 통해 함께 동참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소중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 참여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기꺼이 나누던 사람들의 모습. 각기 다른 연령의 주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내놓던 순간들, 함께 참여하여 만든 환경 작품 만들기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던 사람들의 모습. 함께 동참하자는 다짐. 각자의 이야기는 단편적이고 작아 보였지만, 그것들이 연결되자 여러 사람이 쥐고 있는 끈들이 가운데로 모이며 하나의 커다란 그물을 만들어가는 듯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관계의 문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관람하거나 체험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결국 서로 엮히고 연결되는 방식 그 자체라고. 주민들이 처음엔 서먹해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이름을 알고, 취향을 나누고, 동네의 문제를 함께 얘기하고, 해결을 위해 작은 실천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 베풀게

해주는 문화', 즉 공동체의 끈이 생겨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누구나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상 속 생활문화 활동은 특정한 사람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언어가 된다는 것을. 바쁜 직장을 마치고 온 주민, 오랜만에 마을 활동에 참여한 중년의 어르신, 아이와 함께 한 가족, 학업에 지친 학생까지 모두가 제각기 다른 결의 끈을 가져와 환경 실천이라는 주제로 한 공간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이 모여 우리가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것이, 공동체가 가진 힘이며 생활문화가 마을에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기간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6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는 사우나의 '따뜻함'을 닮은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고, '사랑과 우정을 나눠요'라는 <사우나>는, 온기가 서로에게 스며 들고, 한 사람이 흘린 땀과 열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 전체의 온도를 바꾸는 말. 우리 프로그램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참여,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미소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데우며 서로를 다시 일으켜, 마을 속에서 이 정도의 끈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연결되고 회복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활동은 나에게도 스스로의 끈을 단단히 매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부산문화재단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바다 환경을 주제로 하는 '비치 코밍'에 참여하며 바다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속 되어감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참여예술 컨벤션에 동참하며 문화 예술의 한 자락에 진행자로 참여하면서 일상 속 생활문화인으로 또 한 번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감동받은 것은, 체험 부스를 운영하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에 다시금 마음을 잡아 진행한 기억이 남습니다.

올해 사회참여예술 컨벤션은 옛 부산시장의 관사인 도모현에서 진행이 되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변화된 크고 작은 유휴공간을 놓치지 않고 깨알같은 공연과 심의 공간, 일상 속 생활 문화의 진행자로 참여한 각 단체를 배려하여 부스를 의미 있게 연결해 준 점 등은 다른 행사와의 다름을 느끼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약 1년이란 시간동안 15분도시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인 생활문화 클라쓰, 사우나, 기타 등등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발표의 장이 되었고, 마을 곳곳의 크고 작은 많은 단체들의 숨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점을 잘 알기에, 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사회 참여 예술 컨벤션 행사에 흠뻑 적셔 돌아가는

기회를 되었다 생각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하나 하나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 나 또한 책임감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함께 동참한 많은 분들 또한 그러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활문화를 일상에 녹아내리게 하고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이 모습에 또 한 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실, 부산에서 진행되는 많은 문화 활동은 바쁜 삶을 살아가는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동경하는 문화 활동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나에게, 지금껏 해보지 못한 문화의 고품을 내가 사는 마을에서 문화 향유를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우리 마을의 바람을 이어지게 한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은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사는 마을에 관심과 애향심을 가지는 공동체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 웃고, 듣고, 고민한 그 순간들 덕분에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얻어 외롭지 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어 풀뿌리 문화가 자리 잡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기후 위기, 돌봄의 부담, 관계의 단절, 지역 공동체의 약화 등 수많은 문제가 개인에게 큰 무게로 내려앉는 시대입니다.

일상 속 생활문화는 우리를 연결하고, 연대하게 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한 소중한 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이 내게 가르쳐준 의미는 "공동체는 거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끈을 서서히 동여매는 과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나는 앞으로도 지역의 생활 문화와 예술이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도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일상 속 생활문화가 삶을 바꾸는 방식은 크지

않지만, 꾸준하고 따뜻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에게 다시 이어주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앞으로도 주목 걸어가고 싶은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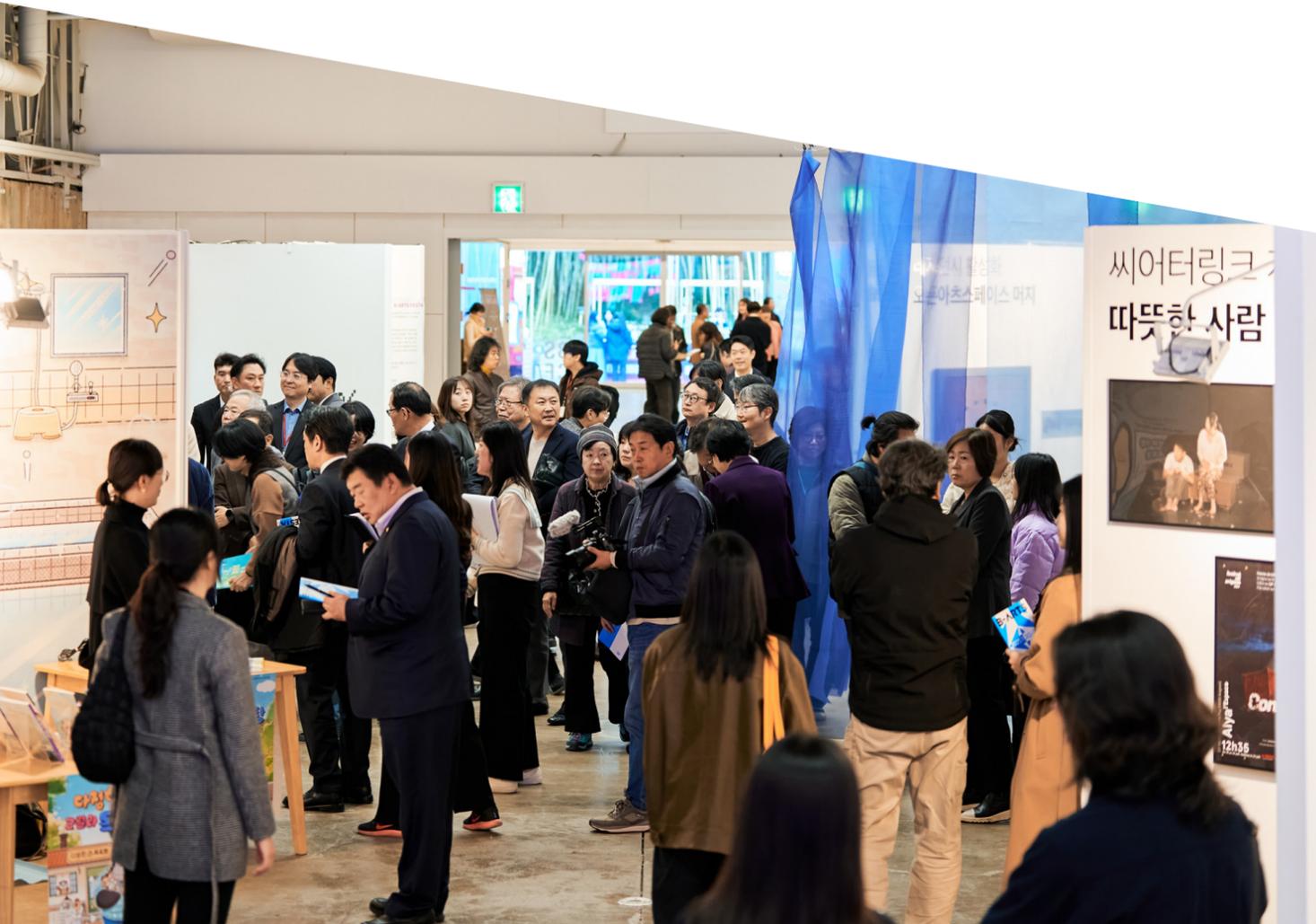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이어진 수많은 끈이 언젠가 더 큰 공동체의 그물을 이루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올해의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해 봅니다.

**백희정**

머드레다울협동조합 대표.  
'환경'과 '교육'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 B-ARTS Festa, 예술이 이어지는 도시

글. 김현정



도시가 한 해 동안 품어온 예술의 호흡이 한곳에 모여 거대한 공명이 되는 순간.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F1963 석천홀에서 열린 B-ARTS Festa (비아츠 페스타)는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의 결실을 확인하는 축제이자, 부산 예술의 현주소를 증명하는 생생한 기록의 장(場)이었다.

부산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선보인 비아츠 페스타는 2025년 한 해 동안 재단이 지원한 문화예술사업의 결실을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확인하는 축제다. 시각·공연·문학 등 14개 부문에 35개 팀이 참여해 “올해 부산의 예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장으로 답을 건넸다.

전시와 공연, 성과공유회가 이어진 현장은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무대이자, 예술가가 창작을 지속해온 시간과 그 과정의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석천홀을 가득 채운 80여 권의 문학 서적, 재현된 공연 무대 세트,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 씨어터링크·공공예술·다원예술·청년문화육성·장애예술인 지원까지. 서로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부산 예술 생태계의 다층적 면모가 입체적으로 드러났다.

성과공유회는 이 행사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시각예술 분야의 송성진·진영섭 작가, 문학 분야의 박미라·배길남 작가, 공연예술단체 ‘따뜻한 사람’과 ‘문화예술연구소 플랫폼’이 각자의 작업 경험을 나눴다. 포커스온, 레지던시, 씨어터링크, 공공예술 등 서로 다른 지원사업을 경험한 예술가들이었지만, 한자리에 모이자 다양한 고민과 공통된 문제의식이 동시에 드러났다.

완성된 작품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고민까지 솔직하게 공유한 이 행사는, 공적 지원으로 탄생한 예술이 어떤 여정을 거쳐 시민 곁에 닿는지를 보여주었다.

예술이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공유와 대화로 확장되며 다음 창작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선 비아츠 페스타는 ‘발표’가 아니라 ‘연결’을 남긴 행사였다.

그렇다면 “도시가 이 연결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예술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 제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비아츠 페스타는 그 답을 현장에서 찾고자 했다. 창작 성과물 공유의 장이 만들어지자 예술은 한 해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해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 바로 그 지점에 문화예술지원 제도가 있다. 제도는 창작의 처음과 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한다.

올해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흐름 속에서, 비아츠 페스타 현장에서는 2026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부산문화재단은 올해 '부산문화예술지원 3.0'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핵심은 "창작을 넘어, 유통과 확산으로의 도약"이다. 지금까지의 지원이 예술가의 작품 제작, 즉 '창작 실연'에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 작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시민에게 향유되는 '확산' 단계까지 함께하겠다는 선언이다.

무엇보다 창작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1단계 창작기반(준비) → 2단계 창작실연(제작) → 3단계 창작확산(유통·향유)의 3단계 선순환 구조로 운영한다. 예술가가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거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완성된 작품이 국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유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단년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년 지원을 확대해 예술가가 긴 호흡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여기에 기술융복합 예술 등 미래 지향적 창작 영역을 발굴해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려 한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창작개발(협업), 기술기반 융복합예술, 공간 연계(스페이스 링크), 유통 연계(유통 준비) 등 6개 분야별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했다.

'예술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비아츠 페스타는 지나간 한 해를 요약하는 행사가 아니라, 새롭게 구축되는 지원체계가 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보여준 장면이었다. 예술가의 창작 여정이 지원-창작-공유-확산-다음 창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예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부산이 앞으로도 예술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아츠 페스타가 그 증거이자 출발점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김현정**  
 부산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  
 예술가들의 창작 여정이 지역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도시를 꿈꾸며, 정책과 현장을 잇는 일을 하고 있다.

# B-ARTS Festa in 따뜻한 사람

글. 허석민



부산에서 작업을 이어온 나에게 올해 B-ARTS Festa 참여는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었다. 극단 <따뜻한 사람>의 성장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우리 극단이 걸어온 변화를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2017년 극단을 창단한 이후 몇 년 동안 우리는 지원 한 번 받지 못한 채, 거의 모든 작품을 사비로 제작하며 버텼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부산문화재단, 극단 <따뜻한 사람>, 그리고 작업자 허석민 사이에 어떤 '끈'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구)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에 선정되면서 처음으로 재단과 우리 극단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 인연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극단의 방향과 작업 규모를 바꾸어 놓았고, 지원을 기반으로 극단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극단 따뜻한 사람의 최근 몇 년은 그 성장의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올해는 (현)씨어터링크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한 창작극 '바람을

일으키는 작은 손, 부채'가 2025년 부산연극제에서 새연극상, 우수연기상, 무대예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고, 소극장 <6번출구>에서 진행한 공연 역시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극단 레퍼토리 창작극 '컨테이너'가 부산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우수연기상 2명, 우수희곡상을 수상했고, 이 작품 또한 소극장 <6번 출구>에서의 모든 회차가 매진되며 관객들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씨어터링크 지원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이 있었다. 창작환경이 안정되자 작업이 흔들리지 않았고, 극단은 보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통해 성장했고, 예술가로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공연예술은 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다. 서로 다른 철학과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연 안에서 호흡을 맞추고,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며, 사고와 감정을

나눈다. 우리의 지난 시간도 그 보이지 않는 실들이 하나씩 연결되며 만들어낸 결과였다.

올해 극단 <따뜻한 사람>의 주요 활동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프랑스 아비뇽 off 페스티벌 참가다. 아비뇽은 세계 수백 개의 팀이 모여 각자의 질문과 미학을 펼쳐내는 거대한 장인데, 그 안에서 부산에서 출발한 우리 팀이 관객을 만났을 때 느낀 것은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공연예술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끈을 만들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프랑스 관객들은 '컨테이너'가 다루는 인간의 고립과 연대,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를 깊이 공감해주었다. 부산에서 창작되고 사장되어질 수 있었던 작품이 프랑스 현지 언론의 인터뷰와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비평을 받으며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 제안까지 들어왔을 때, '지역에서 작업하는 극단에게도 이런 길이 열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부산문화재단과 우리 극단이 처음 연결되기 전인 2022년 이전의 <따뜻한 사람>을 떠올리면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원 없이 사비로 버티던 그 시절에는 해외는커녕 다음 작품을 준비 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아비뇽 경험은 '성장' 그 자체 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지역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자리를 잡고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활동이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외로 확장될 수 있다면, 많은 청년예술가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길을 만드는 데 부산문화재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지역 활동을 고민할 때,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작업 반경을 넓히고, 스스로의 작업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극단이 그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극단 따뜻한 사람의 단원은 현재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95%가 청년 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B-ARTS Festa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한 해 동안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가능성이 열렸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극단은 이번 B-ARTS Festa에 '컨테이너'의 공연사진과 대본을 함께 전시했다. 아비뇽에서의 경험을 단순히 성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에게 실제 작업의 흔적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컨테이너'의 일부를 15분 쇼케이스 공연으로 선보이며, 작품이 어떻게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시간도 가졌다. 전시장 곳곳을 돌아보며 타 장르 예술가들의 작품과 활동을 접했을 때, 부산 예술 생태계가 얼마나 폭넓고 깊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실감했다. 문화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술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분들도 있었고, 사라져가는 부산의 풍경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자들도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산'을 그리고 있었다.



B-ARTS Festa는 그 다양한 시선과 방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드문 자리였다. 한 공간 안에서 예술가들의 고민, 실험, 성찰, 성과가 동시에 펼쳐졌다. 예술가에게 이런 자리는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읽고, 작업의 방향을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배움의 장이다. 무엇보다도 이 축제는 성과공유회를 넘어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누구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예술이 다른 예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에 가깝다. 이런 연결은 앞으로의 작업에서 큰 도움이 되며, 지역예술이 고립되지 않고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B-ARTS Festa는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에도 다양한 예술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창구다. 시민들이 예술가들의 활동하는 공간으로 찾아와 경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스스로가 시민에게 다가가는 과정인 자리인 것이다.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예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예술과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결과들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고 예술가-예술가, 예술가-시민, 예술-도시 사이에 새로운 끈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자리였다.

**허석민**

부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끈을 무대 위에 올려온 연출가.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된 질문들이 세계와 다시 부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현장에서 느린 걸음으로 작품을 만들어 간다.

# Reimagining the Everyday:

## Taipei Fringe Festival and the Spirit of “Taiwan Sensibility”

일상의 재해석: 타이베이 프린지 페스티벌과 ‘대만감성’의 정신

글. 양츠잉(Tzu-Ying Yang)



Yang Tzu-Ying

In recent years, scenes of everyday life in Taiwan — its narrow alleyways, aging houses, and glowing night markets — have quietly become a cultural trend among young people in South Korea. This tender and nostalgic aesthetic is affectionately called “대만감성” (Taiwan Sensibility), symbolizing a longing for warmth, sincerity, and unpolished beauty.

최근 몇 년간 대만의 좁은 골목길, 오래된 가옥, 불 밝힌 야시장의 일상적인 풍경들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용히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부드럽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미학은 따뜻함, 진심,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는 “대만감성(Taiwan Sensibility)”이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Beneath this romanticized image, however, Taiwanese artists have long engaged with the everyday in more subversive ways. Their performances often take place not only in theatres but in all kinds of urban spaces — historical train stations, cafés, old houses — transforming familiar settings and questioning the very idea of “ordinary life.” Each summer, the Taipei Fringe Festival (TFF) becomes a key platform where these reimagined versions of the everyday quietly unfold.

그러나 이런 낭만적인 이미지 이면에서, 대만의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더 전복적인 방식으로 ‘일상’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극장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차역, 카페, 오래된 주택 등 온갖 종류의 도시 공간에서 펼쳐지며, 익숙한 배경을 변화시키고 ‘평범한 삶’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매년 여름 개최되는 “타이베이 프린지 페스티벌(Taipei Fringe Festival, TFF)”은 이렇게 재해석된 일상의 모습들이 조용히 펼쳐지는 핵심적인 플랫폼이 됩니다.

Founded in 2008 by the Taipei City Government’s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and later managed by the Taipei Performing Arts Center, the TFF was inspired by the spirit of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 freedom, openness, and nonconformity. In its first year, 61 artist groups participated, offering a wide range of experiential performances.

2008년 타이베이시 문화국(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이 창설하고 이후 타이베이 공연예술센터(Taipei Performing Arts Center)가 운영을 맡은 TFF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의 자유, 개방성, 비순응 정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첫해에는 61개 예술 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형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Among them, artist Jimmy Chang staged A Wedding Banquet, a performative ceremony that blurred the boundary between art and real life. Audiences joined the wedding feast — choosing between vegetarian and non-vegetarian meals when purchasing their tickets — and the ticket itself served as a cash gift for the newlyweds. During the TFF opening parade, Chang and his wife, Circle (Xuan Simin), rode a motorcycle through the city in full traditional wedding attire, turning their wedding into a striking public spectacle. Chang later described this event as a turning point in his understanding of what theatre could be.

그중 아티스트 지미 창(Jimmy Chang)은 예술과 실제 삶의 경계를 허무는 수행적 의식인 “<결혼 피로연 (A Wedding Banquet)>”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관객들은 티켓 구매 시 채식과 일반 식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실제 결혼 피로연에 참여했고, 티켓 자체가 신혼부부를 위한 축의금 역할을 했습니다. TFF 개막 퍼레이드 동안 창과 그의 아내 서클(현시민, Xuan Simin)은 전통 혼례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질주하며 그들의 결혼식을 인상적인 대중적 볼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훗날 창은 이 사건을 연극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바꾼 전환점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Yet experimental performances in Taiwan are not new. In the 1980s, the so-called “Little Theatre Movement” emerged as artists, students, and citizens began performing in streets, ruins, and other unconventional spaces. These works were acts of defiance against institutional authority and cultural hierarchy — where the body itself became a site of protest and imagination.



Chen Chieh-jen

하지만 대만에서 실험적인 공연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에는 예술가, 학생, 시민들이 거리나 폐허, 기타 비전형적인 공간에서 공연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소극장 운동(Little Theatre Movement)”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제도적 권위와 문화적 위계에 대한 저항의 행위였으며, 신체 그 자체가 시위와 상상력의 장이 되었습니다.

Now in 2025, the TFF enters its seventeenth year. Hundreds of performance groups activate diverse venues across Taipei — from bars and train stations to a cold noodle shop — turning the city into a vast creative playground.

2025년인 현재, TFF는 1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수백 개의 공연 팀이 바(bar), 기차역, 심지어 냉면집에 이르기까지 타이베이 전역의 다양한 장소를 활기차게 만들며 도시를 거대한 창의적 놀이터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Having experienced both the Edinburgh and Taipei Fringe Festivals, I see how each opens new ways of perceiving the city: freely, unexpectedly, and intimately. The TFF, in particular, offers free venues for emerging artists, supporting those at the beginning of their careers and helping them cultivate new audiences.

에든버러와 타이베이의 프린지 페스티벌을 모두 경험해 본 저는, 각각의 축제가 도시를 자유롭고,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인식하는 새로운 방식을 열어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TFF는 신진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공연 장소를 제공하여,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이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The Taipei Fringe Festival exemplifies how the aesthetics of everyday life — often celebrated abroad as “Taiwan Sensibility” — can be reactivated within Taiwan as a site of critical imagination. In transforming streets, cafés, and alleyways into stages, artists continue to blur the boundaries between art and daily existence, keeping alive the city’s tradition of creative resistance.

타이베이 프린지 페스티벌은 해외에서 흔히 “대만감성”으로 찬사를 받는 일상의 미학이, 대만 내부에서는 어떻게 비판적 상상력의 장으로 재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거리, 카페, 골목길을 무대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예술가들은 예술과 일상적 실존 사이의 경계를 계속해서 흐릿하게 만들며 도시의 창조적 저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zu-Ying Yang is a Taiwan-based performance maker and visual artist. Her practice focuses on interactive and site-specific performance, exploring spatial storytelling as a way to reframe everyday perception. She co-founded Same Same Collective and runs the Co-Zin House Collective. She was an artist-in-residence at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in 2025 Season 3.

**\*\*양츠잉(Tzu-Ying Yang)\*\***은 대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연 제작자이자 시각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작업은 인터랙티브(상호작용) 및 장소 특정적(site-specific) 공연에 중점을 두며, 일상의 지각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서 공간적 스토리텔링을 탐구합니다. 그녀는 'Same Same Collective'를 공동 설립했으며 'Co-Zin House Collectiv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즌 3 트레저 힐(Treasure Hill) 예술인 마을의 입주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 지역 청년정책 진단과 과제

글. 김주현

## 1 들어가는 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향유 등 삶의 전 영역에서 구조적 불안정성과 전환기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역의 청년들은 수도권 중심의 기회 편중, 산업 기반의 약화, 문화예술 생태계의 불균형 속에서 더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부산시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와 기획자들은 도시의 문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인 동시에 향후 지역의 문화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프로젝트 중심의 단기 지원, 공간 및 네트워크의 부족, 경제적 취약성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 이에 청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나 일자리 지원을 넘어,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정책 영역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본 원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시대 부산 청년 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지역 청년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시점에서 부산의 청년 지원정책은 청년층의 무엇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가? 현재의 청년 정책은 청년 문화예술 창작자 및 기획자의 활동 기반과 지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본 원고는 지역 청년 정책이 문화예술 청년의 실제 삶과 활동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앞으로의 정책이 지역 창작 생태계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부산 청년 정책의 현재

부산시는 2024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 지역 청년을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참여 등 전반에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1조 9,09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5년 기준으로는 95개 사업에 약 4,14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는 청년 정책의 규모가 최근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은 크게 일자리, 주거안정, 교육역량 개발, 문화 복지, 참여 권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일자리 분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업 연계 프로그램, 직무 교육, 인턴십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두 번째, 주거 분야는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교육역량 개발 분야는 디지털, 문화콘텐츠 등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기반의 교육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넷째, 문화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 문화공간 운영, 신진 예술인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문화 향유와 복지 강화 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참여 권리 분야는 청년 정책 참여단, 청년위원회 등 청년 의견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부산의 청년 정책은 예산 규모와 사업 수 모두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며, 청년의 일상과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부산의 청년 정책은 예산과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각 정책 영역에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부산지역 청년 9인(나이: 평균 29.4세, 성별: 남 4인, 여 5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일자리 분야는 지원 프로그램이 많음에도 지역 산업 구조의 제약으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안정성은 여전히 낮으며, 주거 정책은 현시점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역량 개발 정책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 복지 분야는 대부분 단기 공모 위주로 운영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참여 권리 정책은 제도적 참여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다양한 분야 청년의 접근성과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정책의 질적 보완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 3 부산 문화예술 분야 청년 정책의 한계

부산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문화재단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 문화예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문화기관들은 청년 창작자와 기획자를 대상으로 창작지원금, 프로젝트 공모, 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공간 운영 지원, 레지던시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지역 기반의 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초기 활동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년 창작자 및 기획자들이 활동을 이어가기에는 여러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다수의 정책이 단년도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어 장기적 활동 기반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높은 경쟁률과 제한된 선정 규모로 인해 안정적인 지원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창작공간 및 작업실 지원이 존재하더라도 임대료나 생활비 등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는 구조적 정책은 제한적이다. 더불어 예술 활동 경력이 짧거나 비정형적 경력을 가진 청년은 공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제도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책 운영 과정에서 문화예술 기획자에 대한 별도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

이다. 많은 프로그램이 창작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역 문화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청년 기획자가 전문성을 확장하고 지속적인 경력을 쌓을 기회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예술인의 의견이 정책 설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필요와 정책 방향 간에 간극이 발생하는 점 역시 개선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힘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 4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제언

부산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 예술가와 기획자가 ‘부산=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기 좋은 곳’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현재 다수의 청년 예술인은 행정 절차의 과도한 복잡성, 단기 공모 중심의 구조, 생활 기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역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이 요구된다.

첫 번째, 행정 지원 절차의 간소화와 이용자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원 사업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도한 서류 제출, 증빙, 사후정산 절차는 청년 창작자에게 큰 부담

으로 작용한다. 예술 활동보다 행정 노동이 더 크다는 현장의 지적은 오래된 문제이다. 따라서 사업 구조의 단순화, 증빙 기준 완화, 디지털 기반의 간편 신청, 정산 시스템 도입 등 행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 예술인이 부산에서 ‘행정적으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지역 정주를 선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두 번째, 소규모, 초기 창작을 지원하는 소액 다빈도형 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서울 문화재단이 운영했던 ‘소액다킴’과 같은 제도는 초창기 예술가와 학생, 독립 예술기획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약 50만 원 규모의 지원이지만, 맨 처음 시도하는 미술, 음악, 공연 프로젝트, 모임, 실험적 시도에 큰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저예산 및 초간편형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들이 부담 없이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이지만 청년에게 “부산에서는 작은 시도라도 환영받고 지원받는다”는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에 대한 심리적, 문화적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단년도 공모 중심 구조를 넘어 2~3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 예술인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작품 세계와 기획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장기 구조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장기 레지던시, 다년도 기획·운영 지원,

#### 김주현

미술과 문화경영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도시재생·공동체 지속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 있다. 현재 경성대학교 글로컬문화학부 문화기획전공에서 지역 기반 문화기획 연구를 중심으로,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 5 나가는 글

청년 문화예술인이 부산에 머무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과 실험을 환영하는 문화적 분위기이다. 소규모 지원을 통해 첫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적 작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마련될 때, 부산은 청년 예술가·기획자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청년이 부산에 머무르고, 또 부산으로 모여들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만 한다. 부산이 청년들에게 편안하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는 건강하고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다시, 고통을 느끼는 우리로

글. 최승현

**<2025 기후위기 탄소중립 with 비치코밍>이란?**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예술 행동



기후위기 탄소중립 with 비치코밍 기획전시

독했던 여름이 지나고, 얼마나 매서울지 짐작조차 어려운 겨울 문턱이다.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기후 위기와 이상 기온에 대해 습관처럼 떠들어 댈 것이다. 지금이라도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기후위기의 책임론과 음모론을 추적하기에 바쁠 것이다. 극한의 더위와 추위에 직면하고 문제를 인지하는 우리의 감각도 더욱 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아픔이 느껴지기까지, 우리는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른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어쩌서 현재의 기후 위기를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일까. 우리는 언제부터 자연을 분리된 대상으로 여기며, 자연과 연결된 감각의 신경망마저 끊어져 버린 것일까. 이 신경망을 재건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그래서 현재의 기후위기가 바로 우리의 아픔임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회복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당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획전시 《2025 기후위기 탄소중립 with 비치코밍》은 그런 자연과의 일체 감각을 누구보다 앞서 회복한 이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부산문화재단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난 5년 동안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

으로 진행해 온 비치코밍 활동을 전시의 형태로 정리해 보자는 데서 출발했던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회복의 길을 닦아온 이들의 이야기다. 사진, 영상 등의 기록은 물론, 비치코밍으로 얻은 오브제를 활용한 설치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축적된 결과물들은 그들이 그간 얼마나 값진 시간을 쌓아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숨 쉬는 자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성과에 더해, 전시장으로 사용 예정이었던 한성1918의 재개관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도 의미를 실어,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부산문화재단의 열의가 구체화되면서 전시는 점차 확장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나도 이 전시의 기획자로 참여하게 되었고, 기획전시 《2025 기후위기 탄소중립 with 비치코밍》은 비치코밍의 실제 기록을 다루는 《파도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루는 《다시, 태그》 두 개의 전시로 구성되는 최종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다시, 태그》의 기획자로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고통’이었다. 예술마저 인류의 심리적 치유나 위로, 안정감 형성을 위해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기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고통’은 언젠가부터

기피의 감정이 되었다.<sup>01</sup> 예술애호가라 자처하는 이들조차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과 평온함, 행복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에게 일종의 감각적 ‘신호’다.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돌아보게 해주는 친절하고 직접적인 안내인 셈이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기후위기’로 부르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이상 환경 징후들이 우리가 느껴야 할 고통의 신호임에도, 정작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기후 자체가 병들어 나타나는 증상이거나, 분노한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로 여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고통의 감각을 되찾는 일이 아닐까.

상실한 감각은 결국 신경망의 재건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 끊어진 신경과 신경을 이어 다시 감각이 흐르게 만드는 일, 나는 그것을 ‘태그’라는 연결 행위를 통해 시도해 보곤 했다.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그리고 또 자연과 자연이 놓아버렸던 손을 되잡아 원래의 하나로 돌아가는 길은 다시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예술가들

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았다. 우리가 함께 태그하여 서로 연결됨으로써 잃었던 고통의 감각을 되살리고, 현재의 기후위기가 우리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전시 제안에, 예술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게 내민 손을 맞잡아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태그되었다.

한국의 깃대종과 민화 속 동식물들에, 어쩌면 실재했다가 멸종되었을지도 모를 봉황까지 더해 완성한 김정화 작가의 조화로운 생명의 덩어리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형태를 바꾸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바다의 흔적을 추적하고, 그를 통해 우리가 거대한 자연의 순환 속에 있음을 일깨워준 노무라 유카 작가의 <일상의 바다>. 빛과 그림자를 통해 쓰임을 다해 일상에서 제거된 사물들의 실존 흔적을 포착함으로써 사라지도록 강요된 감정의 층위와 우리가 외면해 온 존재의 자리를 돌아보게 만든 서민정 작가의 <하얀 잔상>. 경쾌하게 움직이며 끝없이 이어진 곡선으로 한성1918의 시공간과 관람객들을 연결해 새로운 감각의 장소를 만들어낸 안재국 작가의 <공간 유희>. 삶과 죽음,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바다, 그리고 개인의 서사와 도시의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때 존재했던 모든 것들에

01 철학자 한병철도 『고통 없는 사회: 왜 우리는 삶에서 고통을 추방하는가』(김영사, 2021)를 통해 고통 공포에 포획당해 만성 마취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의 위태로운 삶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태그’를 시도한 야마우치 테루에 작가의 <신호파>, <들어 올려, 떠도는(한때 존재했던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은 여기에>. 자연, 인간, 사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상호작용과 순환, 소멸 탄생의 세계를 시각화함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사유하게 한 오유경 작가의 <샤이닝 스톤>, <연결인식의 감각>, <맺고 있는 연결 상태 1, 2, 3>. 땅을 착취하고 파헤치기보다는 한 계절을 선명하게 보내는 일을 통해 다음 계절을 준비함으로써 계절과 계절을 잇고, 사라진 당연함을 되살려 다정한 위로의 공간을 제공하는 장두루 작가의 <계절 잇기-땅과 사람 잇기>, <해태님>. 비치코밍으로 수집한 소리 조각들에 인간과 자연의 시간을 엮어, 우리 몸과 감각이 세계와 맺는 관계, 사라지는 것들과 남겨지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청각적 풍경으로 그려낸 정만영 작가의 <recombining(리코밍)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 작품들은 나의 태그에 응답해 온 참여 작가들의 태그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들이 열어 준 세상 속에 내가 있고 그들이 내 세상에 들어와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관계망이 어느새 새살 돋듯 구축되고 있는



비치코밍 기획 전시

듯한 강렬한 느낌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경험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태그해 완성한 공동 설치작품 <다시, 태그>는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균형 잡힌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예술적 선언이기도 하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장두루 작가가 물었다. “이런 전시, 또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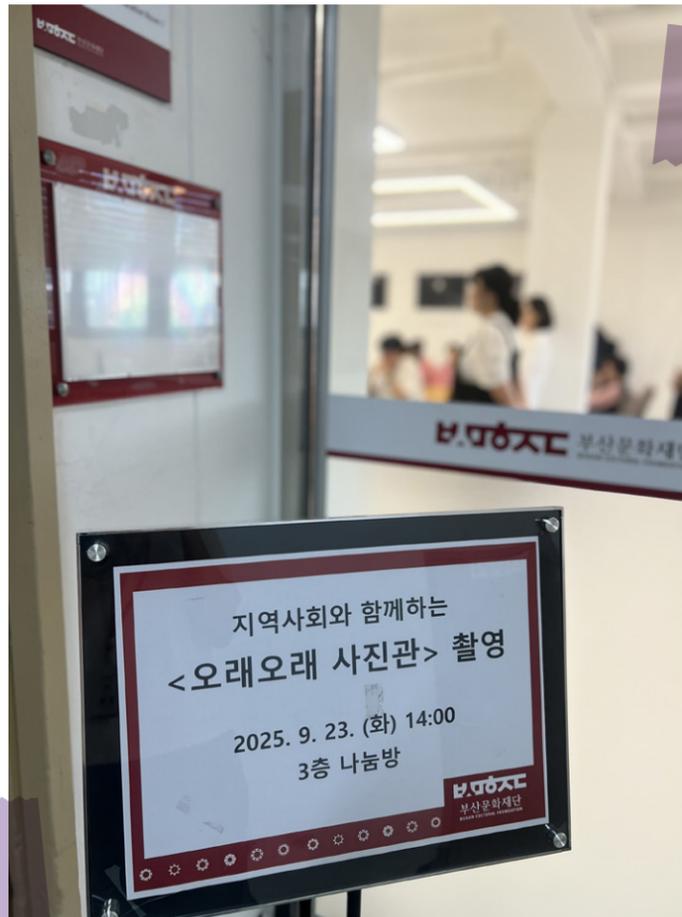
그래서 대답해 보았다. “계속 만들면 됩니다!”

**최승현**

예술과 언어, 문학이 만나는 자리에서 전시기획과 글쓰기로 사유를 펼친다. 일상의 균열과 관계의 지층 속에서 세계를 읽으며, 당연함에 다시 물음을 던지는 새로운 감각을 탐색한다.

#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다는 것

글. 한지은



재단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맡으며 가장 많이 생각한 단어는 '연결'이다. 사회 공헌은 흔히 사회적 관점, 복지적 관점으로 이해되지만 재단 직원으로서 그 안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사회공헌을 풀어나가고자 고민해 왔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관계가 생기고, 추억이 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 그 순간들을 나는 현장에서 여러 번 마주했고, 그때마다 사람과 문화예술을 연결하는 일이 재단이 가진 언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작년 그룹홈 아이들과의 사진 촬영은 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첫 경험이 었다. 사회공헌이라는 업무를 처음 맡게 된 후,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 공헌정보센터(이후 사회공헌센터)를 방문하였다. 회의에서 들은 여러 필요 중 가족사진을 가져보지 못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 부분이 문화예술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사회공헌센터는 참여 할 수 있는 그룹홈을 연결해주었다.

촬영은 지역 스튜디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대표님은 단체 가족사진만이 아니라, 사업의 의미를 함께 이어가고자 각 그룹홈의 상황에 맞게 가족사진 외의 개별적 사진들을 더 담아주셨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같이 웃을 맞춰 입고, 거울을 보며 단장하는 모습들, 서로의 사진을 보며 웃는 그 순간들을 지켜보며 관계의 순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꼈다. 이 경험은 사회공헌을 예술로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첫 장면이었다.

올해 진행한 장수사진 촬영 사업도 같은 고민 위에서 이어진 프로그램이었다.

사회공헌센터가 지역에서 확인해 전달한 여러 필요 가운데 어르신들의 생애 사진을 남기는 일이 있었다. 작년에 이어 이 의미를 이어가고자 올해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남구 내 참여 기관을 찾아 연계해주는 과정을 사회 공헌센터에서 도와주셨다. 촬영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 작가님께 연락해 진행하게 되었다.

촬영 당일, 재단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셨다. 처음에는 긴장하기도 하시고, 이 옷이 어울리는지 현장에 같이 오신 복지사님들과 거울을 보시며 단장하셨다. 촬영을 마친 뒤 사진을 들여다보기도 하시고, 작가님께 “참말로 고맙데이~”라며 말씀을 건넬 뉘늬 모습들,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담아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님, 그리고 복지사님들의 노력들. 나는 그 순간들을 보며 이 사업의 의미들과 방향이 현장에서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올해 연말에는 사진 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사회공헌을 준비하고 있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커피박으로 비누를 만들고, 한부모 가정에 필요한 물품과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관계를 기반한 사회공헌이라는 큰 흐름은 동일하다. 직원 간의 협업과 나눔의 과정에서 내부의 연결이 만들어지고, 그 연결은 한부모 가정과 지역사회로 다시 이어진다. 지원의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서로가 만나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나는 내년에는 그룹홈 가족사진과 장수사진으로 시작된 이 사진 시리즈를 다른 대상과 방식으로 더 확장해보고 싶다.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사람들의 시간을 묶어주고 관계를 남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왔다. 그리고 그 ‘묶이는 순간들’은 마치 하나의 끈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놓는다.

작년의 가족사진,  
올해의 장수사진,  
직원과 한부모 가정이 연결되는 연말의 작은 나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기록들.  
그 모든 장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조용히 이어주는 끈이었다.  
예술을 통해 만들어진 이러한 연결들은  
지역이 버티는 힘이 되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우리가 추구하는 의미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한지은**

부산문화재단 소통홍보팀에서 근무한 지 2년 차.  
분주하게 흐르는 하루 속에서도 잠시 숨 고르는 법을 배워가며, 하루를 채워가고 있다.

# 전통과 현대의 조화, 국악그룹 '이별'



2018년 창단한 국악그룹 '이별'은 국악의 중심음인 '황종'과 서양음계의 'Eb(E-flat)'을 연결하여, 새로운 음악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팀명에 담았습니다.

이들은 전통 국악의 깊은 울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트렌디한 한국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별'은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무대를 통해 대중과 깊이 소통하며,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새로운 국악의 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편견과 어려움을 버티게 해준 단단한 '끈'은 국악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확신이 되었고, 이제는 대중과 호흡하는 살아있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별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통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새로운 국악의 길을 관객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국악그룹 '이별'  
더 알아보기

## 해외공연 이력

- 2023.1.12. 홍콩한인상공회 신년하례회 축하공연  
(2023 Hong Kong Korean Chamber of Commerce)
- 2023.8.21.~25. 이탈리아 Ferrara Festival 'Buskers' 선정  
(2023 Italy 'Ferrara Buskers Festival')

## 지난 <가을호> 어떻게 보셨나요?

‘제이작업실에서 감 잡기’ 부분이 기억에 오래 남아요.  
예술인이 작업실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과정이 공감도 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감 익은 예술가님들의  
인터뷰가 생생한 현장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간행물 접할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어요.

알찬 내용이 많은  
가을호였어요.

앞으로 있을 전시를  
소개하는 코너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좋은 전시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머 - 시각의 향기’ 작품이 인상적이네요.  
전시에 가지 못했지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르익은 축제 깨어나는 도시’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글이  
좋았어요.

비치코밍 내용이 좋았습니다.  
저도 기후와 생태에 관심이 많은데,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바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듯하여 보기 좋습니다.

‘비치코밍, 우리는 쓰레기를  
주우러 바다에 간 게 아니라  
바다의 목소리를 들으러  
간다’는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각 지역 시민이 평소에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는 장소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알립니다**

《공감 그리고》는  
겨울호(59호)를 마지막으로, 종이 위에서 이어온  
이야기가 이제는 **화면 속에서 새롭게 펼쳐집니다.**

종이 위에서 함께한 소중한 시간,  
그 감동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공감 그리고》는  
**화면 위에서,**  
더 가까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부터는 **더 새롭고, 더 친근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을 지켜가겠습니다.

※ 《공감 그리고》는 앞으로 온라인 웹진으로 이어집니다.  
지면으로 받아보시던 독자께서는  
아래 메일로 개인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웹진 소식과 구독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bscf@bscf.or.kr](mailto:bscf@bscf.or.kr)

